



화단 및 분화용 바위떡풀 재배기술

바위떡풀

Cultivation and Using for Garden and Potted of *Saxifraga fortunei* var. *incisolobata* Native to Korea.



송정섭 | 이학박사

T.031-290-6140,
songjs@rda.go.kr, www.wildflower114.com

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화훼과장
(National Horticultural Research Institute, RDA)



바위떡풀은 바위치랑 같은 집안의 식물로 둘 다 범의귀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풀이다. 습기가 많은 곳을 좋아하며 음지나 추위에 강하지만 더위나 강한 햇볕은 무척 싫어한다. 따라서 그늘진 곳의 습기가 많은 암석 틈 같은 곳에 심으면 잘 자란다. 잎 끝이 작은 파상을 이루는 것처럼 특이하게 생겼으며 꽃 모양도 특이해 분화나 분경용으로도 좋다. 특히 음지에 강해 실내식물로 개발할 만 하다. 우리나라에는 바위떡풀과 잎 자루에 털이 있는 털바위떡풀(울릉도 자생, 전국 곳곳에서 관찰됨), 지리산, 속리산에 나는 지리산바위떡풀의 3종이 자생하고 있다.

1. 생태적 특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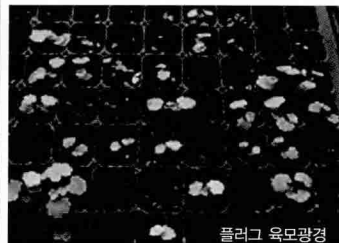
바위떡풀은 골짜기의 물 있는 곳의 바위 틈이나 썩은 나무에 붙어 자생한다. 따라서 주변에 웬만큼 습도가 유지되며 여름에 시원한 곳에서 잘 자란다. 꽃은 자생지에서는 8월 초순부터 9월 중순 사이에 한달정도 피지만 실내에서는 이보다 훨씬 길어져 11월까지 꽃이 계속 피며 자생지보다 약 30일간 정도 개화기간이 긴 것이 보통이다. 꽃눈은 단일에서 분화되는 단일성을 보이며 꽃이 진 다음 그 자리에서 종자가 달려 익으면 지상부의 잎은 말라죽고 뿌리는 휴면에 들어간다. 종자 크기는 0.8mm 정도이며 모양은 방추형이다.



꽃이나 잎 모두 기품있어 보인다.



자생지에서 개화된 모습으로 많은 꽃대가 나와 있다.



플러그 육묘광경

2. 재배기술

번식방법으로는 종자, 분주 및 삽목번식이 있다.

가. 파종

종자는 약간의 휴면성을 가진다. 잘 익은 종자를 받아 뿌리기 전에 저온처리(4℃)하거나 지베렐린 20~30ppm액에 15~20분 정도 담가두면 발아가 잘 된다. 발아에 적당한 온도는 20~25℃의 중온성 식물이다. 육묘할 때 파종용 흙은 물이 잘 빠지는 인공토양이 좋다. 묘상을 만들어 줄뿌림이나 흩어 뿌림을 하기도 하지만 플러그판에 파종하면 옮겨 심을 때 몸살도 적고 쉽게 새뿌리를 내린다. 씨앗 뿌린 뒤에는 육묘상이 마르지 않도록 버미큘라이트로 덮어준다.

나. 포기나누기

이른 봄 싹트기 직전인 3~4월 상순에 모주의 크기에 따라 액아를 1~2개씩 붙여 뿌리의 포기를 나눠준다.



자생지개화모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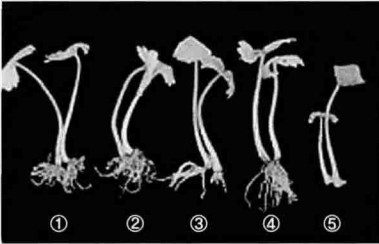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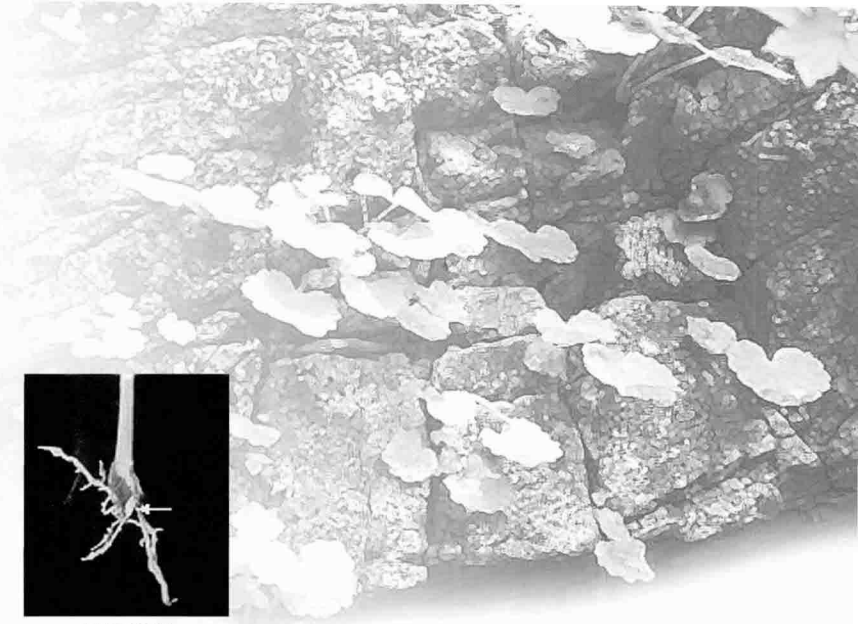
다. 삽목

삽목은 잎자루를 따서 쓴다. 7월 중순에 발근제 IBA 500mg/L를 담근 뒤 모래에 삽목하고 30~50%의 차광망을 씌운 다음 마르지 않도록 미스트를 설치하여 매일 오전 10시 경 충분히 물을 주면 새 뿌리가 내린 묘를 60% 정도까지 얻을 수 있다. 실험결과 삽목용토로는 버미큘라이트와 펄라이트를 3 : 1의 비율로 혼합한 것이 발근이 가장 좋았다.

라. 정식 및 관리

라. 정식 및 관리

분화용으로써 정식은 식재방법에 따라 다르다. 보통은 작은 화분에 1~2주씩 화분이 꼭 차도록 심는 방법이 있고, 둘에 붙일 때는 자생지 풍경을 재연하기도 한다. 분갈이는 뿌리가 길게 뻗어 나오면 개화중이라도 해준다. 함께 식재할 수 있는 자생화로는 바위떡풀과 재배환경이 비슷한 양치식물 등 잎이



〈용도별 발근〉



〈신초출연〉

그림. 삼목용도별 발근모습

① 모래 ② 버미큘라이트 ③ 퍼라이트 ④ 버미큘라이트(3) : 퍼라이트(1) ⑤ 바이오상토

가는 종류가 어울린다. 또 나무나 돌등을 올려놓고 흙 표면을 이끼 등으로 피복하면 멋진 작품이 될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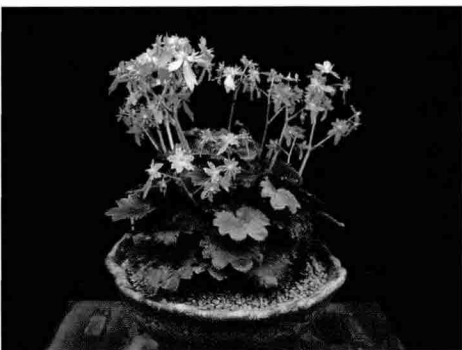
정원에 심을 때에는 음지나 습기가 유지되는 정원석의 움푹 파인 곳에 심는다. 배수가 잘 되는 곳이어야 하고 주변 식물들이 왕성하게 자라면서 고사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. 특히 별이 너무 강하면 전체적으로 크기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심하면 잎이 타거나 황화된다.

화분에 물을 줄 때는 화분 아래에서 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저면관수를 해줘야 한다. 돌에 붙여 키우는 것은 여름에 마르기 쉬우므로 습도관리에 각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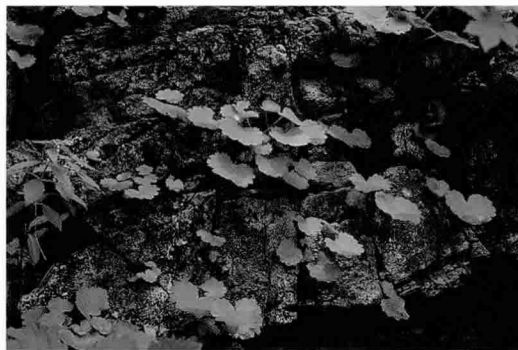
한 주의가 필요하다. 겨울에 지상부가 죽어 휴면에 들어가 있어도 뿌리는 살아남아 있으므로 마르지 않도록 해 준다.

마. 병충해 방제

병충해는 특별한 것이 없지만 너무 과습하면 연부병이나 뿌리썩음병이 발생한다. 여름철 고온건조기에는 응애가 많이 생긴다. 잎에 2~3 마리 보이면 응애약을 뿌린다. 여름 고온기에 타 버린 잎은 빨리 제거해 줘야 새 잎이 잘 나온다. 🐛



농진청 고령지농업연구소에서 육성한 신품종 폭스스타 라고 하는 분화용 품종이다.



암석틈처럼 수분이 유지되는 곳에서 흔히 자생한다.